

# 南平文氏 本里 世居地의 마을과 住居建築 특성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and Village on Nampeong Moon's Bonli Ma-Yul in Daegu

정 명 섭\*

Chung, Myung-Sup

---

### Abstract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structure and elements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on the housing and village in Nampeong Moon's Bonli Ma-Yul which formed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s village had as many as characters of spatial and architectural structures of traditional clan villages previous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t showed housing alternations on social changes of late Cho-Sun dynasty. Main points of these were as follows : 1) As the main doors of the housing were located on the right of Sa-Rang-Chae, men and women's moving lines of coming in and out were not nearly divided. 2) As Korean veranda on the right and left, and the front and rear of those were set up, the demand on extension of room area coping with changes of life was satisfied.

---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씨족마을이란 하나의 성씨 또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모여사는 전통마을이다. 이러한 씨족마을들은 대개의 경우 在地 士族들로 이루어진

班村으로 그들의 월등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우수한 建築物과 文化的 傳統을 갖고 있다.

이들 건축적 遺構와 文化的 傳統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보존되고 있어 建築學과 民俗學 研究에 좋은 대상이 되고 있다.

南平文氏 本里 世居地<sup>1)</sup>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늦은 19세기 이후에 개기되어 일제기까지 형성된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은 넓은 범위에서 班村에 속하지만 다른 씨족마을과는 달

\* 정희원, 상주산업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리 文氏 大小家の 住宅으로만 이루어진 특수성을 띠고 있다. 문씨일가는 이 세거지에서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 상류층의 문화를 享有하면서 고급주택과 재실을 건립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班村 형성에 있어서 최후기에 속하는 조선말기와 일제기에 형성된 이 세거지의 주택들을 대상으로하여 그 건축적 제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의 초점을 마을과 주거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는 데 두고 그 건축적 특이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건축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특징이 새롭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이들 자료는 주거사적 측면에서도 주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현재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에는 주택 9호, 재실 2호, 문고 2호와 관리사 1호가 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문화적 밀도가 높고 그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흔치 않은 마을로 주택변천사 연구의 좋은 대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실증적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실측조사와 그 가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96년에 이 세거지에 대한 정밀 및 간이실측조사가 수행되었다.<sup>2)</sup> 당시의 주요 작업은 실측을 통한 마을의 배치도와 각 건축물들의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상세도 작성과 함께 마을의 역사와 민속적 해석을 위한 문헌자료 수집 및 주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건립 이후의 철거와 개조 등 변형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복원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이 연구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하여 대상을 마을과 주택 9호로 선정하고 그 공간구조와 건축구성요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1〉 대상 주택

번호	주택명	건립연대	소재지
1	문송기 주택	191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97
2	문시갑 주택	1924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74
3	문영갑 주택 <sup>*</sup>	1925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76
4	문정기 주택 <sup>**</sup>	1927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73
5	문보갑 주택	1933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98
6	문유만 주택	1936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77
7	문근만 주택	1936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95
8	문태갑 주택 <sup>***</sup>	1936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75
9	문희지 주택	194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 399

\* 1856년에 지은 초가를 헐고 1925년 건립, 1984년에 옛 집을 뜯고 신축.

\*\* 1856년에 지은 초가를 헐고 건립.

\*\*\* 1873년에 지은 초가를 헐고 건립.

## II. 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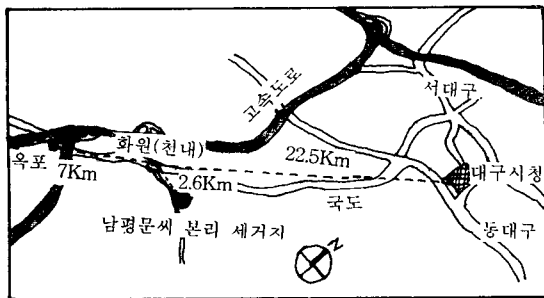
### 1. 마을의 역사적 배경

南平 文氏 世居地는 대구광역시 중심부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12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달성군 화원읍 본리 1동의 일부이다. 이 지역을 일명 仁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마을 동쪽의 산줄기가 '仁'字 모양을 가졌고 동남쪽의 산들이 '興'字 모양을 가졌기 때문이라 한다. 또 이 일대가 옛 仁興寺<sup>3)</sup> 절터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절골', '탑골' 등 절과 관련된 골짜기 명칭이 많다.

이 마을은 星山 李氏가 먼저 입촌하였다고 전하며, 그 후 東萊 鄭氏, 金海 金氏, 南平 文氏 등이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체로 星山 李氏가 마을에서 15대 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의 형성은 450년 전으로 보인다.

문씨 세거지의 성립은 仁山齋 文敬鎬(1812~1874)가 19세기 초반에 지금의 세거지 인근에 자리잡은 뒤 1834년에 龍湖齋를 현재의 廣居堂 터에 지음으로써 세거지가 개기되었다. 그 후 문씨 大小家의 주택들이 지어져서 1940년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남평 문씨는 인근 마을의 타성 소작인들을 써서 광작농업을 경영하는 등 꾸준히 경제력을 향상시켜 오면서 인접한 다른 마을과는 달리 같은 씨족의 상류층 주거지로 발전하여 세거지를 구축했다. 세거지의 형성과 관련된 경제적 기반을 보면 문경호가 개기시 어느정도 재산을 갖고 들어와 자리를 잡은 후 그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닦은 것 같다. 특히 그의 손자인 鳳成(1854~1923)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기와집을 짓고 경제력을 일으켰다 한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만여 평의 대지에 1910년 광거당을 짓기 시작하여 1940년 문희지의 집까지 주택 9호와 재실(廣居堂, 壽峯精舍) 등 모두 12호을 짓던 시기가 가장 경제적 기반이 단단한 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대상 마을 위치도

## 2. 마을의 공간구성

### 1) 마을의 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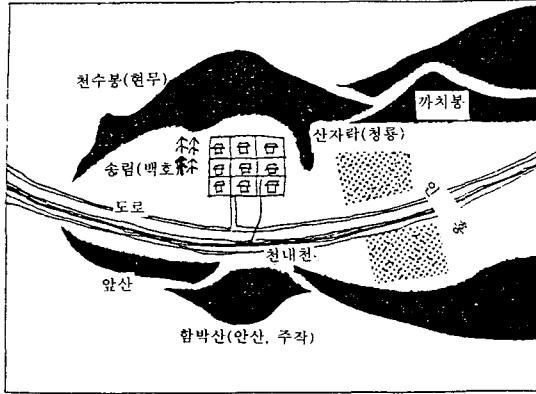
문씨 세거지는 風水地理的으로 볼 때 明堂의 기본 조건인 背山臨水를 취하고 있다. 主山인 千壽峰은 근처의 名山인 琵琶山의 지맥

이 났던 것으로 玄武에 속하고 마을의 남쪽 앞에 솟아있는 형상이 수려한 함박산이 案山 즉 朱雀에 해당된다. 左靑龍은 뒤산에서 뻗어내린 산자락이 되고, 右白虎는 인공으로 조성한 松林이 이에 해당된다. 송림은 백호의 補虛를 위한 裨補로서 인위적으로 吉局을 만들었다 한다. 송림의 많은 소나무들이 枯死하여 그 형태가 빈약해지자 근년에 마을에서 소나무 묘목을 심어서 다시 가꾸는 중이다. 이처럼 四神砂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태여 갖추려고 한 것은 우리의 풍수적 관념에 따라 천지의 정기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자는 일념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명당 연구가 광정진에 의하면 문씨 세거지는 둘러싸고 있는 산들에 의해 五星을 두루 갖춘 명당으로 볼 수 있다 한다. 즉 祖山인 비슬산이 逆龍하여 낙동강을 거슬러 마을의 안쪽에 솟아 있는 小祖山인 까치봉까지 내려온 다음 木星, 火星, 土星의 봉우리들을 만들고 金星인 천수봉으로 입수하여 陽宅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案山인 함박산은 녹마귀인봉으로 土星과 金星에 해당되고, 양택을 만든 용은 화원유원지가 水口가되어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수하는 곳에서 멈추어 水星을 만들어 놓았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꼭씨는 세거지에서 볼 때 案山(함박산)이 조금 벽차게 보이지만 화원유원지 쪽으로 공간이 확 트여 있어서 큰 혼란없이 앞으로 수백년 동안 인물들이 계속 배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작은 규모의 문씨 세거지 形局은 마치 큰 마을 名形局地의 축소판을 연상케 하는 혼치않은 예라 하겠다.

이러한 입지 조건에 따라 이 마을은 뒷산이 겨울철의 북서풍을 막아주고 앞의 개활지가 여름철의 동남풍을 맞을 수 있게되어 주택들이 양지바르고 아늑한 장소에 자리잡고 있다.



(그림 2) 마을 형국도

## 2) 마을의 공간구조

일반적으로 전통 씨족마을은 풍수지리에 준거하여 터를 잡고 그 곳에 정주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문씨 세거지도 전술한 형국을 이룬곳에 1만여 평의 집터를 마련하여 개기(1834)한 후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게되었다.

마을 어귀길의 입구에는 작은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위에 정자목인 큰나무 몇 그루가 서있어 휴식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 광장에서 가까운 곳, 도로의 한 쪽에는 이 마을을 상징하는 조산돌무더기가 있다. 이것은 민간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교적 사상을 신봉했던 이 마을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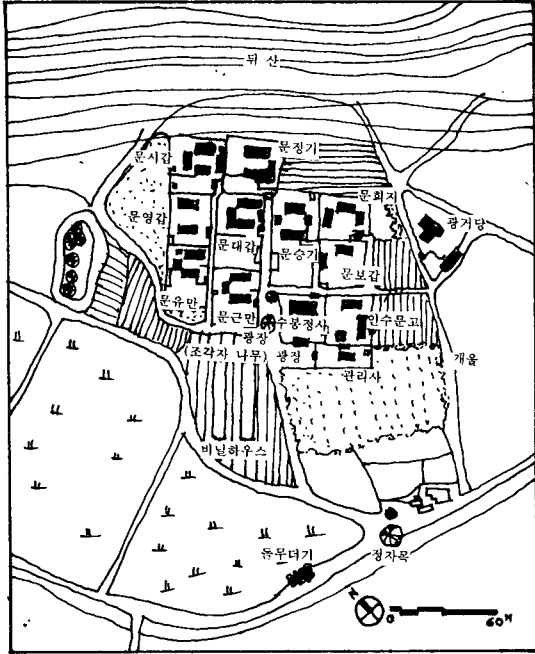
마을 안의 외부공간은 2개의 광장과 길 및 농경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 광장은 수봉정사의 앞에 놓인 것으로 외부인이 마을의 각 집에 가기 전에 머무르는 완충공간으로, 지금은 주로 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 광장은 수봉정사와 문근만 주택 사이에 마련되어 있는데 중앙에 老巨樹(조각자나무)<sup>4)</sup>가 한 그루 자라고 있다. 이곳도 주택으로 가는 도중의 완충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두 광장은 원래 마을 사람들이 모여 휴식과 담화를 나누던 공동의 장이었으나 지금은 그 이용이 과소한 편으로 제기능

을 잃고 있다. 이는 가족수의 감소와 向都移村으로 주민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을의 길들은 거의 다가 직선도로로 구성되어있어 연결이 될 경우 직각방향으로 이어짐에 따라 결절점이 모두 T자형 교차를 이루고 있다. 세거지의 골목길은 전통마을의 고살과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마치 근대도시의 가로망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길로 연결되고 있는 9호 주택들의 형성에서부터 확장 발전까지를 살펴보면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834년 재실인 용호재를 짓던 정착 단계에서 1856년 현 종가터(문정기 가옥)에 초가집을 건립한 후 1873년 초가 1채(현 문대갑 가옥)와 1910년 와가 1채(문승기 가옥)와 용호재를 헐고 광거당을 건립한 성장단계에 이른다. 그리고 1910년에서 1940년까지를 확장 단계로 볼 수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현존 9호의 주택 건설이 완료되고 광거당에 이어 두 번째 재실인 수봉정사가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마을에 건축물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근년까지 내려오다가 1982년에 인수문고와 거경서사 및 관리사가 지어지고 1993년에 중곡서고가 증축되어 마을내 건축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와 90년대 초기를 이 마을의 완결단계로 상정할 수 있겠다.

남평 문씨 세거지의 단계적 발전을 보면 종가가 마을의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그 앞쪽 좌우측에 후손들의 집들이 대체적으로 계보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이는 전통 씨족마을이 집촌형태로 입향조의 정주에 의한 상향위계가 형성되어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종가가 위치하고 점차 후손의 확산에 따라 종가에서 분파된 후손들의 공간으로 계열화되어 사회적 위계와 그 맥을 같이한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배치되는 경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sup>5)</sup>



(그림 3) 마을 배치도

### Ⅲ. 주거건축의 특성

#### 1. 배치형식과 외부공간

이 마을 주택들의 배치형식은 '튼□자'형, '튼ㄷ자'형 및 '튼ㄱ자'형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튼□자'형은 안마당의 전후에 각기 사랑채와 안채를 병렬형으로 두고 그 사이의 좌우에 아래채·고방채·방앗간채·두지·대문채 등의 부속채를 얹힌 것으로 배치에 있어서 완성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주택은 문정기, 문시갑, 문대갑, 문승기 가옥의 4호인데, 문정기 가옥은 후대에 아래채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튼ㄷ자'형을 이루고 있다.

'튼ㄷ자'형은 '튼□자'형에서 안마당 좌우에 있는 부속채 중 하나가 생략된 형으로 대개 아래채가 생략됐다. 문영갑, 문희지, 문유만, 문근만 가옥의 4호가 이에 해당된다. 문영갑 가옥은 1984년 신축하면서 아래채를 철거하여 현재 'ㄷ자'형을 취하고 있다. 이들 '튼ㄷ자'형은 '튼□자'형처럼 사랑채와 안채가 'ㄷ자'형

태의 병렬 배치를 이루고 있으나 문희지 가옥의 경우만 다르다. 문희지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를 직각으로 배치하여 'ㄷ자'형의 개방된 부분이 前面 主向을 향하도록 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보통 상류주택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민가의 배치에서 채용되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튼ㄱ자'형이 있는데 문보갑 가옥이 유일하게 이에 해당된다. 이 집의 경우 사랑채가 없고 아래채가 안채와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다. 소유주 문보갑에 의하면 지금의 모습은 미완성상태로 원래 '튼ㄷ자'형으로 계획하여 안채 맞은편 터밭 자리에 사랑채를 지으려고 했다 한다.

이 마을의 주택내 외부공간은 크게 안마당, 사랑마당, 뒤란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서 안마당은 외부공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안채, 사랑채, 아래채, 고방채 등과의 연결상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안채와 아래채는 안마당 쪽으로 뒷마루가 설치되어 내·외부 공간의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했다. 또한 고방채도 前面이 안마당을 향하고 있어서 안마당이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임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마당 구성형식은 대개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 크게 구분한 일반형과 기능별로 다양하게 세분하여 內外間의 장소 구분을 명확히한 분리형,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內外間의 구분없이 단지 장소의 內外 구분만 한 미분화형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세거리에서는 일반형이 6호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분리형과 미분화형은 각각 1호씩 찾아볼 수 있다.<sup>6)</sup>

일반적으로 전통주택은 후대로 올수록 남녀의 출입 동선 구분이 약화되어 여성들의 출입동선이 사랑마당의 측면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방식이 이 마을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마을 주택의 경우 대문간이 사랑채 우측에 위치함에 따라 안채 출입을 위한 中門間의 기능도 동시에 갖는다.<sup>7)</sup>

한편 이 마을 주택들의 坐向은 南에서 西로 약 35° 기울어진 남서향을 主向으로 하고 있다. 이 향은 천수봉을 正後面에 둔 형태로서 천수봉의 줄기와 거의 직각이 되므로 지형적으로 볼 때 바른 좌향이라 하겠다.

2. 평면형식

평면형식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아래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2〉 주택 배치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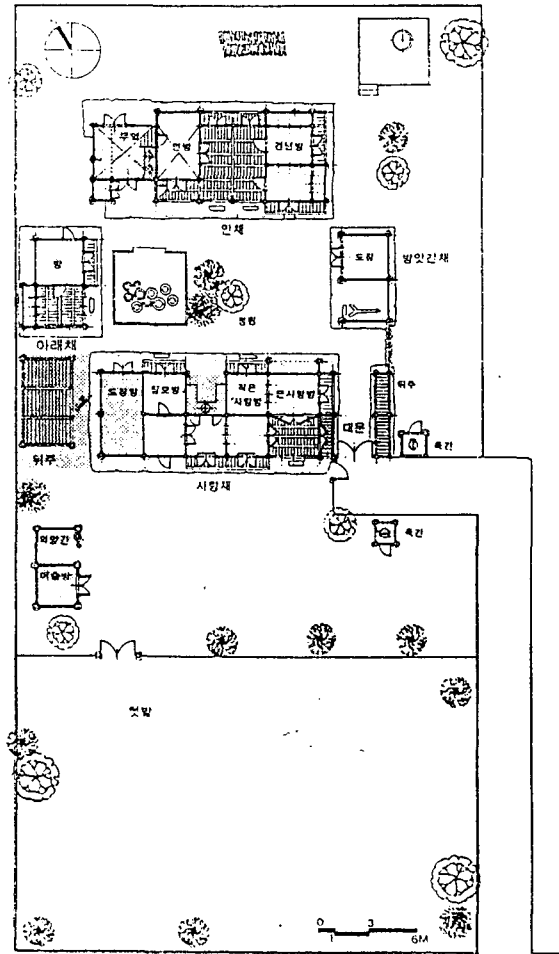
유형	주택명	현상	복원
튼 □자형	문정기*		
	문시갑		
	문대갑		
	문승기		
튼 ㄷ자형	문영갑**		
	문희지		
	문유만		
	문근만		
튼 ㄱ자형	문보갑		

\* 1964년에 아래채 철거 ①안채 ②사랑채 ③아래채  
 \*\* 1957년에 아래채 소실 ④고방채 ⑤방앗간채 ⑥뒤주  
 ⑦대문간채 ⑧중문간채

안채는 모든 주택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발달한 소위 '남부 지방형' 민가의 평면유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부엌-안방(큰방)-대청-건넌방(작은방)의 네 공간이 순서대로 인접해 있으며, 대청의 전면

은 근년에 신축한 문영갑 가옥을 제외한 모두가 개방되어 있다.

남부지방형의 기본형이 전면 4칸인데 비해 이 마을 주택들의 안채는 4칸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5칸인 경우도 2호(문정기, 문대갑 가옥)가 있다. 전면이 5칸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대청 부분이 2칸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前後와 左右에 뒷칸이 발달하여 반침, 벽장 등의 각종 수장공간 및 생활상의 변화에 대응한 室面積 확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 한옥에서부터 나타나는 주거공간 분화 발전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다.<sup>8)</sup> 안채는 대부분 홑집의 형태인데, 문승기 가옥만 건넌방이 복렬화된 겹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4) 문승기 가옥 배치 평면도(복원)

부엌 내부에는 별도의 찬마루를 두고, 부엌 앞쪽에는 식료품을 저장하는 판벽의 벽장을 시설하였으며, 상부에는 다락을 두어 안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찬마루와 벽장은 前時期에서 찾아 볼 수 없던 것으로, 이는 조선후기에 들어와 부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나타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부엌은 본래 전퇴 안쪽 기둥 열에 맞추어 문을 달았으나(문대갑, 문근만 가옥), 근년에 부엌을 확장하면서 전퇴 바깥쪽 기둥 열로 옮겨 달았다.(문승기, 문정기, 문시갑, 문유만가옥) 부엌 면적의 확대는 부엌내

· 측면은 前後退에 의한 복렬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승기 가옥의 경우는 실의 기능 분화가 진전된 겹집으로 각 방들이 앞뒤 두 줄로 배열된 복합형 사랑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사랑채도 안채와 같은 양상의 툇칸이 발달하여 있었다. 사랑채가 안마당을 가운데 두고 안채와 동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채 배면에 툇마루나 쪽마루가 발달했다. 사랑마루는 대개 1~2칸 정도로 사랑채 전체 면적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다. 前時期보다 방의 점유 비율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주생활의 변화로 인해 수용해야 할 다양한 생활내용을 담기 위해 마루의 면적을 대폭 줄이고 그 대신 도장방, 두지, 객실 등의 공간에 많은 면적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표 3〉 주택 평면형식

주택명	안채	사랑채	아래채
문정기			.
문승기			
문시갑			
문대갑			
문유만			.
문희지			
문영갑			.
문근만			.
문보갑			.

K : 부엌 R : 온돌방

가사작업 내용의 다양화와 이와 관련된 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사랑채의 평면형식은 중문포함형(문정기 가옥), 마루편재형(문시갑, 문대갑, 문승기, 문영갑 가옥), 대청중심형(문유만, 문근만 가옥)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내에서도 다시 다양한 평면이 나타나고 있다. 정

아래채는 안채 부엌과 긴밀하게 가사동선이 연결되도록 고려했다. 이 마을의 아래채는 가운데 마루를 둔 마루중심형(문시갑, 문대갑 가옥)과 마루가 없는 방중심형(문정기, 문승기, 문희지, 문보갑 가옥)의 두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자녀들이나 손님의 거처 및 알곡의 보관, 물품 또는 농기구 수장 등의 용도로 이용된다. 이밖에 안채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가사활동과 부족한 침실 확보, 수장공간의 확대 등의 기능도 아래채가 담당한다.

### 3. 건물의 구성요소와 형식

건물의 구성요소는 안채와 사랑채를 주대상으로 하여 건물을 꾸미고 있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기단, 초석, 기둥, 창호, 도리, 대공, 가구, 지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단은 막돌과 화강석을 가장자리에 두르고 그 안쪽 흠바다 윗면을 시멘트몰탈로 마감한 것과 기단 전체를 시멘트몰탈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강석 기단 중에는 가장자리 안쪽 바닥을 몰탈로 하지않고 판석을 깔 집도 있었다. 대체로 건립연대가 늦은 주택들이 화강석 기단과 기단 전체를 시멘트몰탈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후대로 오면서 내구성과 치장을 중시했

음을 읽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전통건축물을 평지에 지을 때 각 건물의 위계에 따라 기단의 높이와 형식을 달리하는데 비해 평지에 건립된 이 마을의 주택들은 안채, 사랑채, 아래채 등 모든 건물의 기단 높이와 형식을 거의 같게 했다.

초석은 막돌 덩벙주초와 키가 낮은 화강암 정평주초의 두 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문희지·문영갑 가옥은 안채, 사랑채, 아래채, 대문간 모두에 화강암 정평주초를 사용하였다. 두 주택은 이 마을에서 건립 연대가 가장 늦은 집으로 기단처럼 후대에 들어 고급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둥은 각주와 원주를 혼용한 문정기 가옥의 사랑채를 제외한 모든 건물에 각주를 사용했다.

도리는 대부분 납도리를 사용하였는데, 문정기·문영갑 가옥의 사랑채에만 굴도리에 소로로 수장했다. 문정기 가옥은 종가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고, 최근에 지은 문영갑 가옥은 치장에 신경을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 도리 하부에는 전부 장혀를 받쳤다. 대공은 안채 일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형판대공·원형판대공·파련대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자주대공을 사용했다. 건물의 상부가구는 거의 대부분 간략한 3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채는 3량과 5량이 반반이고, 사랑채는 종가인 문정기 가옥만 5량가이다. 창호는 안채의 안방·건넌방과 사랑채의 사랑방을 중심으로 마당과 대청 쪽으로 나있는 창호를 주로하여 살펴보았다. 안방 및 건넌방에서 마당으로 향한 창호는 2 또는 3중문을 시설하고 있다. 2·3중문은 쌍여닫이 띠살의 덧문과 그 안쪽에 쌍미닫이 완자살(또는 용자살) 미닫이의 흑창과 영창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방과 대청 사이에 나있는 문은 쌍여닫이 굽넛띠살문이고 건넌방에서 대청으로 통하는 문은 외여닫이 굽넛띠살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과 대청 사이의 창호 중에서 문정기와 문승기 가옥의 것은 본래 2중문으로 현재 덧문과 함께 안쪽에 있었던 미닫이 홈대가 남아있다. 이는 前時期的 전통건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다. 사랑방에서 마당 쪽으로 난 창호는 안채와 같은 종류의 2·3중문을 설치했다. 사랑방이 들인 경우 방과방 사이에 네짝

<표 4> 건물의 구성요소와 형식

주택명	기 단		초 석		기 둥		도 리		대 공		가 구		지 붕	
	안 채	사랑채	안 채	사랑채	안 채	사랑채	안 채	사랑채	안 채	사랑채	안 채	사랑채	안 채	사랑채
문정기	막돌위물탈	장대석+막돌	막돌덩벙	막돌덩벙+화강암정평	각주	각주+원주	납	굴+소로	동자주	동자주	5량	5량+3량	팔작(한와)	팔작+모임(한와)
문승기	막돌위물탈	막돌위물탈	막돌덩벙	막돌덩벙	각주	각주	납	납	제형판	동자주	5량	3량	팔작(한와)	팔작(한와)
문시갑	화강암장대석	화강암장대석	막돌덩벙	화강암정평	각주	각주	납	납	동자주	동자주	3량	3량	팔작(한와)	팔작(한와)
문대갑	화강암장대석	물탈	화강암정평	막돌덩벙	각주	각주	납	납	제형+원형판	동자주	5량	3량	팔작(한와)	모임(일와)
문유만	물탈	물탈	막돌덩벙	막돌덩벙	각주	각주	납	납	동자주	동자주	3량	3량	팔작(한와)	팔작(한와)
문희지	화강암장대석	화강암장대석	화강암정평	화강암정평	각주	각주	납	납	파련	동자주	5량	3량	팔작(한와)	모임(한와)
문영갑	화강암장대석	화강암장대석	화강암정평	화강암정평	각주	각주	납	굴+소로	동자주	동자주	5량	3량	팔작(한와)	팔작(한와)
문근만	물탈	장대석+물탈	막돌덩벙	막돌덩벙	각주	각주	납	납	동자주	제형	3량	3량	팔작(한와)	팔작(한와)
문보갑	막돌위물탈	.	막돌덩벙	.	각주	.	납	.	동자주	.	3량	.	팔작(한와)	.



미서기 맹장지문을 달았으며, 사랑방과 대청 사이에는 쌍여닫이 굽널띠살문을 설치한 문 대갑과 문영갑 가옥을 제외하고는 모두 4분합 굽널띠살문을 달았다. 사랑방의 室間에 설치된 맹장지문 중에는 불발기를 꾸민 집(문승기, 문시갑 가옥)과 안채와 사랑채의 마당쪽 덧문의 옷틀 위에 수평으로 긴 고창 또는 환기창을 시설한 집(문정기, 문영갑, 문유만, 문근만 가옥)도 있었다.

한편 이 마을의 모든 주택 대문쪽에 달린 빗장 둔테를 장수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거북이 모양으로 장식한 것이 눈길을 끈다.

지붕은 안채와 사랑채를 공히 주거건물의 격을 높일 수 있는 한식기와 팔작지붕이 기본이나 한식기와 모임지붕(문희지 가옥 사랑채)과 일식기와 모임지붕(문대갑 가옥 사랑채)도 있다.

#### IV. 결 론

南平文氏 大小家가 모여사는 本里世居地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늦은 19세기에서 일제기 까지 형성된 흔치 않은 작은 씨족마을이다. 이 마을의 공간구성과 9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그 건축적 제특성을 고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형국을 명형국지의 기본요소인 四神砂 중에서 빈약했던 白虎를 인위적으로 裨補하여 吉局으로 조성한 후 전형적인 전통 씨족마을처럼 종가를 마을의 가장 안쪽에 놓고 후손의 가옥들을 대체적으로 계보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

2) 주택의 배치형식은 안채와 사랑채가 별도로 구성된 '튼ㄷ자'형(4호), '튼ㄷ자'형(4호), '튼ㄱ자'형(1호)의 세 종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공간은 크게 안마당, 사랑마당, 뒤란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당의 구성형식은 대부분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 대별된 일반형이며, 대문간이 사랑채 우측에 위치하여 안채 출입을 위한 중문간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출입동선이 사랑마당의 측면을 통과하게 된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前時期의 전통주택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는 후대에 들어서 남녀의 출입동선 구분이 약화되고 있음을 읽게 한다.

3) 안채는 부엌-안방(큰방)-대청-건넌방(작은방)의 순으로 놓이는 一자형의 '남부 지방형' 민가 평면유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건물의 전후와 좌우에 틈칸을 들여 각종 수장공간 및 생활상의 변화에 대응한 실면적 확대의 요구를 충족 시키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주택의 공간 분화 발전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는 상류주택의 보편적인 유형인 마루편채형이 대부분이며, 안채와 같은 양상의 틈칸이 발달된 복렬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승기 가옥은 실의 기능화가 진전된 겹집으로 복합형 사랑채의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주생활의 변화로 인해 수용해야 할 다양한 생활내용을 담기 위해 마루의 면적을 대폭 줄이고 각종 방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아래채는 안채 부엌과의 긴밀한 동선 체계를 갖도록 배치하여 안채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가사활동과 부족한 침실 확보, 수장공간의 확대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4) 기단은 막돌과 화강석을 가장자리에 두르고 그 옷면을 시멘트몰탈로 마감하거나 화강암 판석을 깐 것으로 보아 내구성과 치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평지에 건물을 지을 때 각 건물의 위계에 따라 기단의 높이와 형식을 달리하는 일반적인 전통방식과 달리 이마을의 주택들은 모든 건물의 기단 높이와 형식을 거의 같게 했다.

초석은 막돌 덩빙주초를 주로하여 부분적으로 화강암 정평주초를 사용했는데, 특히 가장 늦게 지은 두 집은 치장에 신경을 기울인 듯 모든 건물에 고급스러운 화강암 정평주초를 놓았다.

각 건물들은 대부분 각주에 납도리와 대들보를 결구하고 동자주 대공을 세운 3량가(또

는 5량가) 팔작지붕(안채, 사랑채)의 장혀수 장집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가의 사랑채는 건물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굴도리에 소로로 수장하고 정면 일부에 원주를 사용했다.

창호는 안채와 사랑채의 정면에 방서·방한을 위한 2·3중문을 시설하고, 사랑방과 사랑마루 사이에는 4분합들문을 달아 좁은 마루의 䄑用性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문정기·문승기 가옥의 경우 안방과 안대청 사이에 2중문을 달았는데, 이는 前時期의 전통 건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평문씨 세거지는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前時期의 전통 씨족마을 및 주택 공간구조의 전통성과 조선말기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상을 함께 지니고 있어 住居變遷史 연구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 주

- 1) 대구광역시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음.
- 2) 조사연구는 영남대 공업기술연구소가 수탁하여 95년 9월부터 300여 일 간에 걸쳐 정밀실측(재실 2동)과 간이실측(주택 3동)을 수행했다. 그 결과는 필자 등이 참가하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존방안연구 및 실측조사보고서」(1996.7.)로 간행되었다.
- 3) 인흥사는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중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세거지의 앞쪽 전담에 옛 절터임을 읽게하는 탑재들과 주춧돌 등이 흩어져 있다.
- 4) 조각자는 전국에서도 귀한 나무로 들레

2.1m, 높이 10.2m이며, 문달규(1832~1905)가 심었다 한다.

- 5)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354쪽.
- 6) 일반형 : 문승기·문대갑·문시갑·문영갑·문근만·문유만 가옥, 분리형 : 문정기 가옥, 미분리형 : 문보갑 가옥.
- 7) 이호열, 대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의 근대한옥 연구, 밀양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 제4집, 1997, 119쪽.
- 8) 김봉렬, 조선후기 한옥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67~71쪽.

## 참 고 문 헌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보존방안 연구 및 실측조사보고서, 삼광출판사(대구), 1996.
- 2) 박명덕, 영남지방 동쪽마을의 분파형태와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3) 김봉렬, 조선후기 한옥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4) 이호열, 대구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의 근대한옥 연구, 밀양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논문집, 제4집, 1997.
- 5) 백영흠·정준현, 무이마을 주거환경 및 주거공간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 제2호, 1997.
- 6) 전봉희, 조선후기 주거사에 있어서 접집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10호, 1996.